

# 최근 핀테크 논의와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이 윤 석 (연구위원, 3705-6274)

## 〈요 약〉

- 사전적 의미로 핀테크를 정의한다면 ‘금융을 지원하는 기술’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현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이슈들을 감안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IT와 접목하여 새롭고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최근 정부는 핀테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이용시 나타나고 있는 장애물의 제거와 함께 핀테크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국가마다 핀테크의 성공사례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함.
- 둘째, 핀테크는 항상 보안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 핀테크 논의범주를 결제 및 송금서비스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과 같이 좀 더 넓은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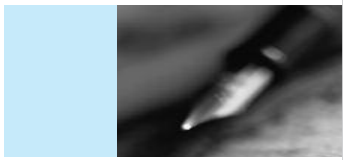
최근 핀테크 논의가 뜨겁다. 2014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복잡한 결제절차로 인해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외국인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전자상거래 결제를 간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핀테크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핀테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핀테크가 무엇이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슈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핀테크 논의를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핀테크란 무엇인가?

2014년에 컨설팅 업체인 Accenture가 발간한 핀테크 보고서<sup>1)</sup>에서 핀테크 회사는 ‘은행, 금융투자, 금융 데이터분석, 지급결제서비스 등 모든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 핀테크를 정의한다면 핀테크는 ‘금융을 지원하는 기술’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이슈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전적 정의보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핀테크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정의가 아닐까 싶다. 본고의 논의는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잠시 논외로 한다면 혁신적인 금융이 남는다. 그렇다면 혁신적인 금융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혁신적인 금융은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투자상품과 같은 상품서비스도 있겠지만 현재 핀테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상품서비스보다는 결제서비스가 보다 일반적이다. 그리고 결제서비스도 한국은행 금융망 등과 같은 거액결제서비스가 아닌 카드결제나 휴대폰결제 등과 같은 소액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새롭게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Accenture, 2014



## 정부의 핀테크 육성노력

정부는 핀테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 이용시 나타나고 있는 장애물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핀테크가 주로 소액결제서비스 분야와 연관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는데, 전자상거래는 소액결제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의 최종적인 결제는 카드나 휴대폰 등을 통한 소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본인 인증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제 때문에 항상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의무적 사용과 이에 따른 Active-X의 설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우선 2014년 5월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자금융사기방지 및 보안성 강화를 이유로 전자상거래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를 발표하여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는 핀테크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행정·법률상담, 자금지원, 컨설팅 등 핀테크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2월 10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하여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업계획이 보다 중요하다. 앞서 핀테크의 정의에서도 확인했듯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 해외사례로부터의 교훈

핀테크성공의 그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페이팔과 중국의 알리바바이다. 페이팔의 경우



eBay라는 인터넷 경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의 이용과정에서 송금서비스까지 추가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주로 수표를 이용하다 보니 분실우려 및 시간적 제약 등이 존재하고, 은행 이체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페이팔을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알리바바<sup>2)</sup>는 1999년에 전자상거래 업체로 설립되어 2000년 중반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알리바바를 통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위어바오’이다. 위어바오는 고객 거래계정에 남아 있는 여유자금을 MMF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중국에서는 개인들이 펀드투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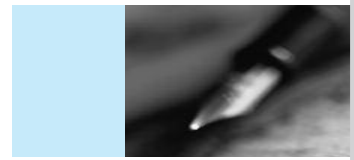
페이팔과 알리바바 말고도 성공을 거둔 다른 많은 사례들도 존재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이후에 IT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 금융서비스와 연계하여 지급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앞서 두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가마다 핀테크의 성공사례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해당국가의 IT 및 금융환경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내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알리바바나 페이팔의 비즈니스 모델을 액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 핀테크와 금융산업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은 핀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IT 및 금융환경을 감안하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야 한다. 외국에서 이렇게 하니깐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거나 비슷하게 가야 한다는 식의 단순

2) 흔히 ‘에스크로(escrow)’로 불리는 결제대금예치업체인 ‘알리페이’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회사이다.



모방형 사업계획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핀테크가 단순히 공인인증서나 Active-X 등과 같은 기술상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Amazon이나 Paypal 등 핀테크를 잘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은 무엇보다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금융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성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Amazon의 경우 단순히 인터넷상에서의 도서구입 서비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킨들(Kindle)과 같은 전자책 서비스의 개발, 중고서적 등 저렴한 도서의 병행판매, 배송관련 문제발생시 철저한 소비자보호 등 서비스 측면에서의 혁신성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핀테크는 항상 보안성과 안전성의 전제하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보안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소비자의 편익성 증대는 무의미하다.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혁신성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지목되어 왔던 보안성 심의제도를 정부가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는 핀테크 업체들 스스로 보안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율성이 부여된 대신 책임도 강화된 것이다. 그동안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건 및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금융회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핀테크 및 금융회사 CEO들이 보안관련 예산 및 인력을 투자로 인식하고 과감한 접근을 해야 사고발생에 따른 비용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핀테크와 관련된 논의범주를 결제 및 송금서비스 외의 분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 논의가 지나치게 결제 및 송금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핀테크는 결제 및 송금서비스 외에도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분석, 금융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이들은 당장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금융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KIF**